

“차별화된 전남체육만의 독창적 색깔 내겠다”

취임 2주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국체전 개최로 인프라 확충 성과 전국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주력 해외교류 활성화에 행정력 강화

“타 시·도체육회와 차별화된 전남체육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내보이겠습니다.” 오는 2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18일 밝힌 향후 체육회 운영 방향이다.

송 회장은 지난 2003년 민선 2기 전남도체육회장으로 당선된 뒤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쉬 없이 달려왔다.

그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와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전남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팀 창단 및 연고지 이전,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한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송 회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으로 열린 전남체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 회장은 “공정한 인사와 양질의 후생



복지제도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 등으로 선진 체육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또한 우수선수 지원과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관리, 전략종목 육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 활성화를 통한 꿈나무 발굴·육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체육인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4~27일 전남에서 개최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에 주력한다.

송 회장은 “2만여명의 전국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남체육의 성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겠다”며 “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위해 각종 팀 창단도 계속 추진한다.

그는 “서울 소재 부동산 기업 펜타홀딩스의 티엘 탁구팀을 전남 소속으로 연고지 이전 준비 중이다”며 “또 3월 목포대육상팀과 탁구팀을 창단해 연계육성 기틀을 강화하고, 2026년에는 남·여 양궁팀과 남·여 펜싱팀, 남·여 배드민턴팀 창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해당 학교 측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차별화된 전남체육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내기 위한 정사진도 제시했다.

송 회장은 “현실적으로 전남의 대학부와 동계종목 열세가 아쉽긴 하지만, 대표선수 배출 및 우수성적 거양 등에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며 “또한 해외교류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강화할 각오다. 축구, 볼링, 배드민턴, 씨름 등 일부 종목단체가 해외교류를 추진 중에 있지만, 도체육회는 현재까지 해외교류 국가라든가 지역은 없다. 올해는 도체육회 차원의 해외교류 물꼬를 반드시 터보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클럽, 다문화 선수에 대한 관심도도 강화할 생각이다. 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배출, 그리고 합과 재능이 넘치는 다문화 가정 선수들의 전문체육 참여는 향후 전남체육의 엘리트 융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소외계층 스마트폰 지원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가 신학기를 맞아 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소외계층 어린이 지원에 나섰다. (사진)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ICT 사업 상생발전 협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기기 값과 12개월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AI로 급변하는 스마트 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

끼지 않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한 ESG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이미 600여명의 어린이가 등록,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

하명복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장은 “40년 이상 SK텔레콤에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고객과 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더 나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 기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한의사회 회장에 최의권·수석부회장 임규훈

제18대 회장·수석부회장 92.03% 지지율로 당선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온전한 의료인으로서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한의사회 제1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최의권·임규훈 단독 후보가 온라인투표로 총 유권자 690명 중 투표율 69.13%인 477명이 투표하여 찬성 439표(득표율 92.0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18일 광주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최 신임회장은 매곡동 메디웰 한방병원 대표원장이며,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본회 보험약무이사, 대한한의학회 중앙대의원·정관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년간 광주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성공적인 회무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신임수석부회장은 월산동 약샘한의원 원장으로, 동신대 한의과대학을



최의권 회장

임규훈 부회장

졸업,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한의사회 법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광주한의사회 통합돌봄TF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최의권·임규훈 당선인은 5대 공약으로 △한의돌봄 및 방문진료사업 활성화 △협약 건강보험 활성화 △한의의료사업 확대 △한의사 공부모임 활성화 지원 △지부 특강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성실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회장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회,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한의보장성 강화에 기여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해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온전한 의료인이 되도록 제도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노병하 기자

(사)에너지밸리포럼 제71차 정례포럼 개최

조환익 유니스(주) 회장 강연

(사)에너지밸리포럼은 18일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환익 유니스(주) 회장(전 KOTRA·한전 사장)을 초청해 ‘전기화 시대의 K-POWER 미래전략’을 주제로 제71차 정례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광주·전남 소재 에너지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전기화 추세에 관심 있는 포럼회원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회장은 전기화 시대의 K-파워를 향한 10가지 화두로 전기의 실질적 산업화, 인공지능(AI) 전환 메가트렌드, 국제경쟁력 등 최근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과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의 핵심으로는 기업주주의 대외 진출전략을, 산업화의 제약요인으로 서플라이 사이드 전력정책을 소개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한·미협력의 새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시했다.

조 회장은 “곧 타임을 놓치면 국가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은 녹색성장의 허브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에너지밸리포럼은 18일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환익 유니스 회장을 초청해 ‘전기화 시대의 K-파워(Power) 미래전략’을 주제로 제71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밸리포럼 제공

말했다.

이어 “K-파워의 전략적 배경으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동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AI고도화 경쟁시대의 급속한 도래와 기후재앙으로 청정에너지 전력의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독일, 유럽의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전력정책 사례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도 AI, 빅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원전, 수소 및 전력망 등 전력 인프라 보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어 미래전략으로는 전력사업의 해외 진출 ‘원 팀 코리아’ 구성을,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한전 및 전력시장 개편,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 시행, 분산 전원제도 정착, 공급망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특히 K-파워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역할로는 한국전력 및 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대 등 전력 관련 학부시설과 AI데이터센터 및 AI중심도시 광주의 역할 재정립 등 전력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전력산업 현장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과 입법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위기탈피는 통제형 전기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데 있다”며 “기회포착은 시장형 전기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Instagram profile for @jnibo (Jeonnam Daily News) with QR code and social media handles.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날씨와 생활' (Weather and Life) with sunrise/sunset times, today's weather, and a 7-day forecast table.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알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

비스 제공(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문의:(062)675-1391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 모집=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010-9092-0343 정원타이거즈 감독)

모집

▽BLACKYAK남도별미산행(우리고장 근교명산, 맛집탐방)=강진 화방산산행후 맛집탐방, 2월22일(토) 오전 7시 블랙야크, 7시10분 광주시청 앞, 7시30분 비엔날레. 문의 (010-3623-1685, 010-9620-2881)